

금타 비상경영 체제인데... 비정규직노조 상생은 '뒷전'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영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가 노·사 갈등까지 겹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 위기에 생존 위기에 몰린 금호타이어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비정규직지회가 최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인계좌가 압류될 처지에 놓이는 등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28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7일 1심 판결에 의한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다.

앞서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400여 명 정규직 전환 요구... 204억원 압류 신청도
1주내 해결 못하면 금융거래 정지 등 회사 존폐 위기
1분기 매출 660억 감소 등 경영 악화 속 상생 아쉬워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정규직 사원과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대상자는 613명으로, 금호타이어가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은 250억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법적인 최종판단을 위해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노·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특별협의를 진행해왔다.

금호타이어 측은 특별협의체를 통해 임금차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등의 방안

을 제시했으나 비정규직지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채권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압류에는 조합원 414명이 신청했으며, 이들은 임금차액 204억여원을 즉시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채권압류가 진행될 경우 앞으로 금호타이어는 법인계좌가 압류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법인계좌가 압류되면 추

후 금융거래가 중단돼 급여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된다.

여기에 신용도 하락과 함께 추가하락, 영업장 혼란 등 추가적인 문제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회사의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동안 금호타이어는 주문부족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지난해 2분기 들어 10분기 만에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닥치면서 생산량이 급감했고, 올 1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661억원 감소하는 등 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2월과 4월 휴무를 진행하는 등 셋다문까지 반복돼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실정이다.

특히 2분기에는 경영이 악화해 심해져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락 폭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심각한 자금난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당장 204억원에 달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법인계좌가 압류됨에 따른 타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이번 압류신청 사태로 자칫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지역 경제계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크다.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노·사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협력을 통해 직면한 위기를 우선 돌파해야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

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노조는 임금고집 결정권을 사측에 일임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노·사가 노력하고 있다"며 "반면 금호타이어는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어려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사측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일자리리를 지킬 수 있고, 회사도 직원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을 서로 알아야 한다. 이기주의가 최악의 경우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동문건설, 광양 굿모닝힐 맘시티 분양

지하 2층~지상 27층 15개 동 1114가구

동문건설은 이달 말 광양시 마동 와우지구 A1블록에서 광양 동문굿모닝힐 맘시티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양 동문굿모닝힐 맘시티는 지하 2층 지상 27층 15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1114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와우지구는 63만6550㎡ 규모에 3703가구, 1만여 명을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여수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도 접근성이 좋다.

단지 뒤로 가야산이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는 남해바다가 있어 고층에서는 산과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와우생태 호수공원과 백운그린랜드공원, 마동체육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청암로, 백운로, 중마로 등을 통해 진입이 쉽고, 이순신대로 및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여수와 순천 등 인접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주변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고, 중마지구와 함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규제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와 4베이 구조(일부 제외)로 개방감을 높였고, 펜트하우스를 비롯한 주방과 침실, 거실 곳곳에 수납공간에도 신경을 썼다.

주차장은 100% 지하(상가용 제외)로 배치했고, 지상에는 녹지, 조경시설과 운동·휴게시설로만 꾸몄다.

특히 단지 곳곳에 자녀와 엄마를 위한 특화시설을 많이 조성했다. 입주민의 여가와 취미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 GX룸,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시설과 사우나, 키즈룸, 멀티룸,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

이밖에 공기정정시스템과 지문인식형 도어록, 스마트 도어 카메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광양시 중마중앙로88 일대에 들어서며, 오픈 전까지 중마로160 일대에 홍보관을 운영한다.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문의 061-818-8822.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휴가 땀 '루즈핏' 원피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4층 써스데이아일랜드 매장에서 고객이 원피스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휴가철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넉넉한 사이즈로 활동이 편하고 시원한 '루즈핏' 원피스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56.99 (+39.13)	↑ 금리 (국고채 3년) 0.813 (+0.010)
↑ 코스닥 807.85 (+6.62)	↑ 환율 (USD) 1196.90 (+0.80)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온라인 이스포츠 대회'

8월8일까지 참가자 모집

광주지역 '볼' (리그 오브 레전드) '배그' (배틀 그라운드) 아마추어 강자를 가리는 '광주 온라인 이스포츠 대회'가 오는 8월8일 열린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0 광주 이스포츠 대회' 참가자를 대회 당일까지 온라인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폼(naver.me/x30eBmXn)을 통해 하면 된다.

'제12회 대통령 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리는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5인 단체), 배틀 그라운드(2인 단체), 클럽 오디션(3인 단체), 브롤스타즈(3인 단체), 카트라이더(개인) 등 5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종목별 1·2위에는 광주시장·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우수한 성적을 올린 참가자는 11월7~8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대통령 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값 '고공행진' 1g당 8만원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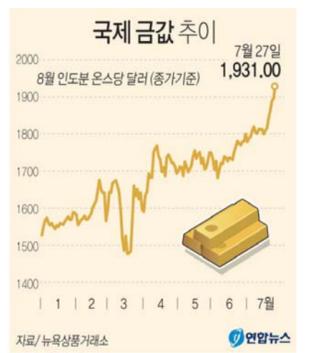
금 가격이 28일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8만원을 돌파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41%(2640원) 오른 8만1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장중 한때 전날보다 7% 급등한 8만297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27일(현지시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8%(33.50달러) 급등한 1931달러에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연합뉴스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